

외교학학사학위논문

포퓰리즘 정당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민주적 가치의 외연적 수용 :

영국독립당과 스웨덴민주당의 비교를 중심으로

소속 자유전공학부 외교학전공

성명 노민종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포퓰리즘 정당이 단순한 부상을 넘어, 정치적 목적의 달성과 이후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탐구하고자 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영국과 스웨덴에서 포퓰리즘 정당으로 분류할 수 있는 영국독립당(UKIP: United Kingdom Independence Party)과 스웨덴민주당(SD: Sverigedemokraterna)이 각각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특성과, 정치적 목적 달성 후의 행보를 살펴본다.

이때의 특성이란, 각 당의 포퓰리즘 성격이 시작된 기원과 이들의 이념적 기반 및 이를 구체화한 정치적 목적 그 자체를 지칭한다. 나아가 정치적인 목적에 기초하여 유권자를 포섭하는 전략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유권자를 포섭하는 전략으로는 당의 정치적인 목적을 변화시키는 것,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 등을 이용하는 것 등이 해당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내용에 기초하여 영국독립당과 스웨덴민주당이 어떠한 유권자 포섭 전략을 시행하여 어떤 결과를 거두었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정치적 목적과 유권자 포섭 전략이 향후의 행보에 어떤 차이를 가져왔는지도 점검해본다. 향후 행보를 살펴보는 기준은, 영국독립당의 경우 2016년 영국 유럽연합 회원국 탈퇴(Brexit, 이하 브렉시트) 국민투표이고, 스웨덴민주당의 경우 2018년 스웨덴 총선으로 설정한다.

나아가, 민주적 가치의 외연적 수용이란, 정당이 추구하는 철학 등 내적인 가치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외적으로 보이는 공약, 수사, 슬로건 등에서만 민주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영국독립당과 스웨덴민주당의 사상적 기반, 역사적인 변화, 최근의 전략적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문헌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대상은 국내외 논문 및 영어 인터뷰 자료, 언론 보도 자료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양적 연구의 부재, 새로운 현상의 예측을 위한 가설의 제시 부재, 스웨덴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자료 접근의 한계가

있다. 양적 연구의 경우, 본 연구 주제에 맞추어 주체적인 양적 연구를 설계하지 못했다. 통계 자료들의 경우, 선행 연구를 통해 시행된 부분이나 온라인 자료를 인용하는 데 그쳤다. 가설 제시의 경우, 단순히 비교 분석과 함의 도출에 그칠 뿐, 사회과학으로서 사회 현상의 예측을 위한 유의미한 가설을 설정하지 못했다. 나아가 한국어와 영어에 국한된 자료 조사로 인해, 스웨덴 현지에서의 반응이나 국내 여론을 심도 있게 조사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면서,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ür Deutschland : Afd), 이탈리아 오성운동(Movimento 5 Stelle) 등의 경우까지 폭넓게 조사하여 비교한다면, 보다 심도있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다만 본 연구의 의의는, 근래 큰 경제 위기를 겪지 않았으면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전통이 확립되어있던 두 국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반이민 성향의 포퓰리즘 정당이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했는지 살펴보고, 영국독립당과 스웨덴민주당의 차이를 통해 포퓰리즘 정당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특성을 파악하여, 최근 난민, 이민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한국의 상황에 함의를 줄 수 있다는 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영국독립당, 스웨덴민주당, 포퓰리즘, 이민, 유럽연합, 민주성

학번 : 2011-13277

## 목차

I. 서론 .....	1
1. 문제제기 .....	1
2. 연구대상 .....	2
3. 논문의 구성 .....	3
II. 기존 연구의 검토 .....	4
III. 논의의 배경 .....	7
1. 포폴리즘 정당의 개념 .....	7
2.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대한 반대와 영국독립당 .....	8
3. 신나치주의의 일환으로 등장한 스웨덴민주당 .....	9
IV. 영국독립당과 스웨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과 유권자 포섭 전략 .....	10
1. 영국독립당의 정치적 목적과 유권자 포섭 전략 .....	10
1) 정치적 목적 .....	10
2) 유권자 포섭 전략 .....	13
2. 스웨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과 유권자 포섭 전략 ..	17
1) 정치적 목적 .....	17
2) 유권자 포섭 전략 .....	20

V. 선거에서의 결과 및 이후의 행보 .....	24
1. 2016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및 영국독립당의 행보 .....	24
2. 2018 스웨덴 총선 결과 및 스웨덴민주당의 행보 ...	25
VI. 결론 및 함의 .....	27
참고문헌 .....	30

## 표 목차

<표1> 2014년 영국 이주민 구성 .....	11
<표2> 영국독립당의 총선과 유럽의회 선거 주요 공약 ...	13
<표3> 2016년 봄 스웨덴과 EU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이슈 .....	18
<표4> 스웨덴민주당의 민족주의적 복지 담론의 요약 .....	21

## 그림 목차

<그림1> 영국이 유럽연합에 잔류해야 하는가? .....	12
<그림2>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자랑스럽게 밝힐 수 있는가? .....	16
<그림3> 스웨덴의 연간 외국인 거주 허용(residence permits) 추이 .....	19
<그림4> 스웨덴의 정당별 지지도 추이 .....	23

# I. 서론

## 1. 문제제기

근래 유럽의 각 지역에서 포퓰리즘 정당의 부상이 뜨겁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부상을 넘어 지속성을 지니는 하나의 현상으로 인정받고 있다. 독일의 경우, 극우정당이라고 일컬어지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이 연방하원의 원내 3당으로 약진하는 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친(親)나치 성향이라 평가되는 자유당(FPÖ: Freiheitliche Partei Österreichs)이 쿠르츠(S.Kurz) 총리와의 연정에 성공하며 중앙정부 진출에 성공했다.

이들은 다양한 선거 쟁점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정치질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거나,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지속에 대한 찬반, 국가 정체성의 회복 등이 주제이다.

유럽 대륙 전체적으로 포퓰리즘 정당의 약진은 다소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각 국가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약진의 양상에 차이도 존재한다.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선거 쟁점 중 특정 이슈에만 집중하기도 하고, 특정 이슈에의 집중을 넘어서 새로운 정치세력이나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대안(alternative)으로 자리 잡기도 한다.

영국의 경우 영국독립당(UKIP: United Kingdom Independence Party)이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통해 영국의 EU 탈퇴라는 결과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고정적인 정치세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서, 정당일체감이라는 요소를 배제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스웨덴민주당(SD: Sverigedemokraterna)이 2018년 9월 9일 치러진 총선에서 약진하며 원내 제2당으로 부상하였고, 같은 달 25일(현지 시간) 뢰벤(S.Löfven) 총리를 불신임하는 데 성공하였다. 특히 스웨덴민주당의 부상에는 정당의 정체성을 확보하여 유권자들이 정당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영국과 스웨덴은 큰 경제 위기를 겪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이민 포퓰리즘 정당이 성장하였다. 또한 영국은 양당제의 전통이 강하게 확립되어 있었고, 스웨덴은 사민주의에 기초한 ‘스웨덴 모델’ 하에 사회민주노동당(SAP: Sveriges Socialdemokratiska Arbetareparti)이 안정적으로 집권해오던 국가였다. 즉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없고 정치적 전통이 확립된 국가였으며, 역사적으로 극우주의 등의 광풍에 휩쓸리지 않았음에도 반이민 포퓰리즘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했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영국과 스웨덴에서 포퓰리즘 정당이 강력한 돌풍을 일으킨 원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양 정당이 유사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한 전략은 무엇인지, 투표 또는 총선 이후 지속성을 지니는 데에는 어떠한 점이 차이를 낳았는지를 중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양국 간 비교를 넘어 한국에 주는 함의까지 도출해보기로 한다.

## 2. 연구대상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영국독립당과 스웨덴민주당의 정치적 목표와 선거전략, 총선 이후의 전반적인 행보로 제한하기로 한다. 이때의 정치적 목표란, 해당 정당이 공식적인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천명한 정당 목표와, 선거 운동 중 정당 차원에서 슬로건(slogan)으로 정한 문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전략의 경우 정당 차원에서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까지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홍보의 행태를 의미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는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지칭하기도 하며, 홍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추상적 단계를 지칭하기도 한다.

또한, 선거에서의 결과 및 이후의 행보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로 제한한다. 즉, 영국독립당의 경우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와 이후 행보를 살펴보기로 한다. 스웨덴민주당의 경우 2018년 스웨덴 총선에서의 결과와 이후 행보를 점검하기로 한다. 이때 투표 및 선거 이후의 전반적인 행보란 해당 정당의 유지 여부, 기존 정당에의 흡수 또는

집권 여부 등을 의미한다.

위와 같이 연구대상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본 논문은 포퓰리즘 정당들의 국내 정치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은 분석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한다. 각 정당이 국내 정치 동학(dynamics)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적해나가기보다는, 최근 2년 이내에 보이는 각 정당의 특징을 살펴보고 비교해보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 3. 논문의 구성

우선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본 논문은 포퓰리즘 정당을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데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이에 기초하여, 포퓰리즘 정당으로서의 영국독립당과 스웨덴민주당의 창당 과정 및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이는 각 정당의 이념적 기반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기초하여 4장에서는 각 정당이 추구한 정치적 목적과 유권자 포섭 전략을 살펴본다. 이때의 포섭 전략에 민주적 가치의 외연적 수용이 포함된다. 나아가 5장에서는 이들의 향후 행보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총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6장의 결론 및 함의에서 4장과 5장 논의의 연관성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주는 정치적 함의를 논하며 글을 마친다.

## II. 기존 연구의 검토

기존의 연구들은 영국과 스웨덴 각각의 사례에 대해 분석해왔다. 우선 영국독립당과 관련하여, 균열구조 변화와 극우정당의 등장을 연관시켜 영국독립당의 등장과 성장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이들에 따르면 탈물질적 가치의 대두 등 가치선호의 변화, 유권자의 탈정렬화 및 소외된 노동자의 발생 등 사회구조적 변화, 유럽통합의 심화라는 3가지 균열구조에, 거대 정당들의 대유럽정책, 정부의 이민정책, 유혈충돌과 같은 계기적 사건이 더해지면서 영국독립당이 부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박기성, 박재정, 2018).

영국독립당이 브렉시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을 통해 분석해볼 수도 있다. 영국독립당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주체로서, 유럽연합 탈퇴를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고민하였다. 그에 따라 이주민들에 대한 불안감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여 반EU 정서를 확립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던 상대 진영인 Vote Leave의 행보에 협력하고, 일부 공약을 양보하면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협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그 결과 박빙의 투표에서 브렉시트라는 커다란 정치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이충희, 2017).

영국독립당의 부상을 경제·정치적 요인만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성이 높다는 선행연구도 존재한다. 다양한 연구에서 경제·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영국독립당의 부상을 설명하려 하지만, 정치적인 요인으로 지목되는 비례대표제 도입과 경제적인 요인으로 지목되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는 충분한 설명력을 지니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비례대표제 도입으로는 영국독립당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군소정당들이 혜택을 봐야 하나 영국독립당만 큰 혜택을 보았다는 점이 문제가 되며, 경기 침체의 경우 영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회복세도 빨랐을 뿐만 아니라 큰 위기를 겪지도 않았던 점이 문제가 된다. 결국, 기존의 주류사회가 이주민들로 인

해 영국인으로서의 특성이 잠식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문화의 다양성과 공존을 추구하기보다는 반이민 정책을 선호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가장 설명력이 높다고 제안한다(김새미, 최진우, 2016).

스웨덴민주당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민주적 용인(acceptability)이 반(反)이민정당 부상의 핵심 요인이었다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선거시장(electoral) 접근 방식에 기초했을 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틈새(niche) 정당 부상을 위한 4가지 요건을 도출할 수 있다. 스웨덴민주당은 새로운 틈새 정당으로서, 정당 부상에 필요한 4가지 필요조건 중 제한적 이민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 유권자의 이슈투표 가능성, 기성 정당과의 경쟁에서 이민이슈 선점이라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 마지막 조건으로서의 낙인의 탈피와 민주적 용인을 달성해내면서 부상을 이루었다고 분석하였다(빈난새, 2016).

스웨덴민주당이 국내의 경제적 균열구조와 문화적 균열구조를 파고 들어 성장하였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다만, 해당 연구에서는 스웨덴민주당이 제도권 정치 안에서 큰 세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배제하고 있다(김면희, 정혜옥, 2013).

스웨덴민주당이 표방하는 이념적 특성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기존 정치세력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있다. 스웨덴민주당은 본래 네오나치 성향에 가까웠으나, 2006년을 기점으로 제도권 정치로 들어오는 시도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민주적 원리를 수용하고 인종주의적 색채를 감추게 된다. 스웨덴민주당 스스로가 기존 정치세력에 대항하는 대안 세력이자 일반 인민들을 위한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주류 세력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스웨덴민주당에게 투표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지만, 스웨덴민주당 자체는 나쁜(bad) 정당이고, 다문화주의는 스웨덴 사회의 부흥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주장을 하는 등 스웨덴민주당에 악한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 노력하는 데에 그쳤다(Hellström et al, 2010).

스웨덴민주당의 성격을 철저한 고립주의, 반이민, 민중주의적 전략의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한 후, 정치에 대한 불신과 이민에 대한 반대

가 스웨덴민주당의 급성장을 이끌었음을 분석해낼 수도 있다(신광영, 2016).

상기 연구들은 영국독립당과 스웨덴민주당 각각에 대해서 그 성장 요인을 풍부하게 분석하였다. 그러나 양국 정당의 유권자 포섭 전략에 어떤 점이 차이가 있었는지를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함의를 도출하는 작업은 수행되지 않았다. 또한, 두 정당이 정치적 목표를 일정 부분 달성한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언급이 적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두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향후 행보와 관련지어 탐구해보기로 한다.

### Ⅲ. 논의의 배경

#### 1. 포퓰리즘 정당의 개념

Mudde, Kaltwasser(2013)는 포퓰리즘(Populism) 정당을 3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sup>1)</sup> 인민(The People), 엘리트(The Elite), 일반의지(General Will)이다. 우선 포퓰리즘 하에서 인민은 최고 권력을 지닌 주체이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정된다. 그러면서도 인민은 민중(the common people)으로서 사회경제적인 구조나 제약, 신분 등으로 인해 권력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차별당한 측면이 있다. 또한, 인민은 민족과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태생과 국적이라는 개념과 결부된다.

또한, 엘리트와 관련하여, 포퓰리즘은 엘리트를 일반 인민과 대립하는 세력으로 상정한다. 포퓰리즘의 시각에서 엘리트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며, 여러 사회 병리 현상을 만들어내는 집단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포퓰리즘을 지향한다는 것은, 부패한 엘리트가 아닌 일반 인민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함을 의미한다.

일반의지는 개별의지와 구별되는 의지이다. 공동선을 향해 나아가는 전체의 의지가 되는 것으로, 단순한 의지의 총합과는 다르다. 포퓰리즘은 인민의 뜻을 일반의지로 파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

물론, Mudde가 지적하였듯 ‘포퓰리즘’과 ‘포퓰리스트 현상’은 다르다. 포퓰리스트 현상은 주로 극우 포퓰리즘이 발흥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극좌 포퓰리즘의 경우 충분히 발흥했다고 보기 어렵고, 포데모스(Podemos), 시리자(Syriza)와 같은 기존 정당들도 포퓰리즘의 색채를 상실하거나 극좌의 성향이 매우 약화되었다.<sup>2)</sup>

1) C.Mudde, C.R.Kaltwasser. "Populism",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Ideologies』 (2013), pp. 1~24.

2)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8/nov/22/populism-concept-defines-our-age>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포퓰리스트 현상이 주로 지칭하는 ‘극우 포퓰리즘’의 범주 안에 영국독립당과 스웨덴민주당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특히 후술할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 스웨덴민주당의 경우 인종에 기초한 민족주의 성향을 보여 극우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 사민주의 담론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극우라고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영국독립당과 스웨덴민주당을 동시에 아우르기 위해서는 ‘포퓰리즘’ 정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포퓰리즘의 특성에 기초했을 때, 포퓰리즘 정당이라 함은 ‘엘리트와 대비되는 일반 인민의 이익을 가공하여 일반의지라 상정하고, 이를 정책 또는 정치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독립당과 스웨덴민주당의 경우 이러한 특성에 부합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기존의 정치세력을 엘리트로 상정하고, 이들이 유럽연합(EU)에 편승하여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치면서, 일반 인민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일반 인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자신들이라고 홍보하는 면모에서 포퓰리즘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2.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대한 반대와 영국독립당

영국독립당(UKIP, UK Independence Party)은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중심으로 창당되었다. 창당을 주도한 인물은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 소속이던 앨런 스케드(Alan Sked)이다.

영국독립당은 창당 초기부터 유럽연합에 대한 반대를 당론으로 상정하고 총선과 유럽연합 선거에 후보자를 배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창당인인 스케드는 영국독립당이 지나치게 우경화되었음을 비판하며 탈당하기도 하였다.

영국독립당은 199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3석을 확보하며 제도권 정치로 편입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시행된 2004년과 2009년의 선거에서도 각각 12석, 13석을 확보하였다. 이렇듯 유럽의회 선거에서의 약진은 지속되었으나 영국 국내를 대상으로 한 총선에서는 당선자를 배출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러나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전통적인 양당인 노동당과 보수당을 누르고 영국 내 최고 득표를 기록하였고, 영국 총선에서도 더글러스 카스웰(Douglas Carswell) 등의 당선인을 배출하는 등 세를 키웠다. 결국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브렉시트라는 큰 결과를 달성하기에 이른다.

### 3. 신나치주의의 일환으로 등장한 스웨덴민주당

스웨덴민주당(SD, Sweden Democrats)은 1988년에 스웨덴당(Sweden Party)를 계승하여 창당된 정당이다. 전신인 스웨덴당이 BSS(Bevara Sverige Svenskt : Keep Sweden Swedish) 등의 인종주의·민족주의 정당을 규합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스웨덴민주당 역시 초기에 신나치주의와 백인 우월주의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1995년부터 중앙당(Centre Party)의 일원이었던 미카엘 얀손(Mikael Jansson)이 당대표로 취임하면서 나치와 관련된 모든 연관성을 제거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2005년 현 당대표인 임미 아케손(Jimmie Åkesson)이 취임하여, 인종주의적 색채를 최대한 탈피하고, 민주적인 원리와 절차 하에서 스웨덴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정당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상당한 세를 구축하기에 이르렀고, 2014년 총선에서 이민, 난민, 테러 이슈 등 국내 안보와 관련된 이슈를 중점적으로 공략하여 원내 3당에 이르는 데 성공하였다. 이들의 성공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8 총선에서의 돌풍까지 이어졌다.

## IV. 영국독립당과 스웨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 및 유권자 포섭 전략

### 1. 영국독립당의 정치적 목적과 유권자 포섭 전략

#### (1) 정치적 목적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및 반이민 정책 강화

영국독립당의 창당 당시 목적은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에 대한 반대였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 통합을 위해 EU 회원국 간의 정책적 협력을 주도한 사업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유럽경제 공동체를 추진하고, 외교 분야에서는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치안 분야에서는 공동치안사업정책을 추진하는 조약이었다.

창당 초기의 영국독립당은 EU 심화 반대에 집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EU 심화 반대 및 영국의 국가 주권을 회복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의회주권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 영국의 국가적 자율성이 유럽의 통합으로 인해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점, EU로 인해 국제사회 내에서의 영국의 입지가 상당히 축소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13페이지의 <표2>에서 드러나는 바에서 알 수 있듯, 초기 영국독립당의 정치적 목적은 EU의 탈퇴를 유도하는 데에 집중되었다. 즉, 해당 시기 영국독립당은 ‘유럽 연합 탈퇴’를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단일 정책정당(single issue party)으로서의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sup>3)</sup>

영국독립당은 약 20년간 단일 문제만 호소하는 정당 또는 압력 단체로 활동하면서 기득권 정치가 아닌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다. 이들의 지역적 지지 기반은 상류층이나 중산층이 많이 거주하는 주에 있었다.<sup>4)</sup>

그러나 영국독립당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2가지 변화를 마주하게 된다. 하나는 당 외부의 일반 유권자들의 변화였으며, 다른 하나

3) 이충희 (2017). 영국의 EU 탈퇴 과정에서의 영국독립당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분석. 유럽연구, 35(2), pp. 31~33.

4) Judis, J.B. (2016). 『포퓰리즘의 세계화』 (오공훈, 역). 서울: 메디치. (원서출판 2016), pp. 204~205.

는 영국독립당 내부에서의 공약의 변화이다.

우선, 당 외부의 변화로서 유권자들의 변화를 살펴본다. 영국독립당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2009년에 16.5%의 득표율을 얻어내는 등 세를 확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정치세력에 해당하는 보수당에 이은 2위의 위치였다.

선거결과를 통해, 영국 내에서 반EU 정서가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때 반EU 정서의 근원은 정치적 요인 및 경제적 요인도 기여한 바 있으나,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김새미, 최진우, 2016). 정치적인 측면에서, 기존 정당에 대한 실망과 기존 정당질서에 대한 실망만으로는 영국독립당의 성장을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 녹색당 등 기타 군소정당에 대한 지지는 크게 성장한 측면이 없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 역시, 전세계 경제 상황의 추이에 비해 영국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았던 측면을 감안할 때 충분한 설명이 어렵다.

<표1> 2014년 영국 이주민 구성

	2012/2013(천명)	2013/2014(천명)	변화폭	전년대비 증가율
전체	571.88	565.72	-7.16	-1%
유럽연합	398.03	420.65	22.62	+6%
비유럽연합	174.43	144.18	30.25	-17%
폴란드	96.48	91.56	-4.92	-5%
루마니아	17.69	63.43	45.74	+259%
불가리아	9.99	21.59	11.61	+116%

출처 : 영국통계청(ONS)<sup>5)</sup>

따라서 보다 포괄적인 인과관계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블레어(T.Blair) 정부는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이주를 유도한 바 있다. 여기에 유럽통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유럽 재

5) 김새미, 최진우 (2016). 영국 극우정당 성장의 사회문화적 요인. 유럽연구, 34(1), p.94.

정위기의 근원지였던 남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대규모 이민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는 <표1>에서 잘 드러난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불법 이민 근절조항의 마련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제대로 된 통제에는 실패하였고, 이민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 이주민들로 인해 기존 주류 사회의 영국성(Britishness)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면서 EU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EU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였음에도, 그 추세는 일관적이지 않았다. 아래의 <그림1>에서 알 수 있듯, 영국이 유럽연합에 잔류해야 하는지에 대해 찬반여론은 등락을 반복해왔다. 심지어 이민문제에 대한 반감이 어느 정도 존재하였던 2015년 초에도 반대 여론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이때 영국독립당은 이러한 반대 여론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부적 변화를 취한다.

<그림1> 영국이 유럽연합에 잔류해야 하는가? (응답 %)



출처 : YouGov<sup>6)</sup>

6) <https://yougov.co.uk/topics/politics/articles-reports/2015/02/24/eu-referendum-record-lead>(검색일 : 2018년 12월 1일)

영국독립당 내부에서의 변화는 공약의 부분적인 변화였다. 나이젤 페라지(Nigel Farage) 대표는 ‘정부의 이민정책’이라는 국내 이슈를 EU 탈퇴라는 영국독립당의 핵심 공약과 결부시키는 작업을 본격화하였다.<sup>7)</sup> 페라지는 거대 정당들이 유럽연합으로 인해 이민정책에 대해 반대 의견을 원만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서, 명확한 반이민 정책을 제시하여 거대 정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동원하였다.

<표2> 영국독립당의 총선과 유럽의회 선거 주요 공약

	1997	2001	2005	2010	2015
총선	1. EU 탈퇴 2. 교육지원 확대 3. NHS 예산증액 4. NATO 유지 및 WEU 반대 5. EU 농·어업 정책 반대 6. 출입국 관리 강화	1. EU 탈퇴 2. 독자적 농·어업 정책 운영 3. NATO 강화 4. 국경통제 강화	1. EU 탈퇴 2. NHS 자율성 보장 3. 교육지원 확대 4. 지역정부 권한 강화 5. 국경통제 강화	1. EU 탈퇴 2. 유럽 이주민 통제 3. 교육지원 확대 4. 가족문화 정착 5. NHS 지원확충	1. EU 탈퇴 2. 전방위 이민 제한 <sup>8)</sup> 3. 세금 감축 4. NHS 지원 확대 5. 제한적 육아 지원 6. 교육 지원 7. 주택 확충 8. 친환경 정책 반대
EP 선거	1994 EU 탈퇴	1999 EU 탈퇴	2004 EU 탈퇴	2009 EU 탈퇴	2014 EU 탈퇴

출처 : UK General Elections : party manifestos, “Party Manifestos,”<sup>9)</sup>

7) 박기성, 박재정 (2018). 극우정당의 등장과 성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9(1), pp. 133~152.

8)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5/apr/15/ukip-manifesto-2015-the-key-points>

9) 이충희 (2017). 영국의 EU 탈퇴 과정에서의 영국독립당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분석. 유럽연구, 35(2), p.33에서 수정 인용.

나아가 그는 정치적으로 소외된 노동계급과 외면당한 세대(left behind)에도 주목하였다. 전통적으로 노동계급은 영국 노동당(Labour Party)에 의해 대변되었다. 그러나 토니 블레어가 새로이 제3의 길을 천명하면서 노동당은 사회주의 강령을 포기하게 되었고, 노동계급은 그들을 대변할 정당을 찾지 못했다. 특히 이들이 EU 내의 노동시장 개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반이민 정책을 한층 강조하였다. 노동계급은 오늘날 외면당한 세대(left behind)에 포함되어 새로운 경제구조에 적응하지 못한 사회세력으로 인지되고 있었다. 영국독립당은 노동세력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외면당한 세대까지 동시에 포섭할 수 있었다.<sup>10)</sup>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표2>에 나타난 영국독립당의 공약들이다. EU 관련 이슈에 집중되어있던 공약이,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세금감축, 주택확충 등 노동계급을 위한 부분을 강화했고, 2015 총선에서는 페라지 당수가 반이민 정책을 전방위로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영국독립당의 이러한 행보는 비일관성을 띠던 영국 여론을 반EU 성향으로 포섭하는 데 일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sup>11)</sup> 다만, 총선 결과와 여론의 추이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그 기여도는 크지 않았고, 브렉시트 이슈에 대한 관심을 고양하는 데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

## (2) 유권자 포섭 전략: 소셜네트워크 이용과 지방의회 중심의 접근

영국독립당은 유권자 포섭을 위해 정치적 목표를 EU 탈퇴로 유지했다. 다만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과 지방의회를 거점으로 유권자를 포섭하는 전략을 채택하였고, 이를 2016년 영국 유럽연합 회원국 탈퇴 국민투표 캠페인 과정에 적용하였다.

우선 소셜네트워크의 경우, 당수인 페라지부터 트위터(Twitter)와 페이스북(Facebook)에 상당수의 팔로워(follower)를 보유하고 있다. 페

10) R.Ford and M.Goodwin, "Understanding UKIP: Identity, Social Change and the Left Behind," The Political Quarterly, Vol. 85, No. 3 (2014), p.278.

11) 김새미, 최진우 (2016). 영국 극우정당 성장의 사회문화적 요인. 유럽연구, 34(1), p.99.

라지는 이를 기반으로 정책에 대한 선전 및 유권자들과의 소통을 진행하였다. 또한 영국독립당은 감성적인 선거 포스터를 온라인 상에서 적극적으로 유통시키면서 주요 이슈를 다루었다. 이렇게 특정 주제에 대한 대중과의 빠른 소통을 통해 영국독립당은 유의미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었다. 특히 데이터 분석 회사인 버드송(Birdsong)에 따르면, 영국독립당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어 상당한 결과를 거두고 있었다. 영국독립당의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참여율은 약 87%에 육박하여, 보수당의 9%와 비교할 수 없는 수치를 기록하였다.<sup>12)</sup>

이때 주의할 점은, 영국독립당은 기존의 언론 매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영국독립당과 같은 포퓰리즘 성향의 정당이 일간지, 타블로이드지 등과 결탁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언론 입장에서는 영국독립당의 세가 무시할 수 없을만큼 커지면서 다루는 빈도가 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영국독립당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며 다룬 것이 이를 반증한다.<sup>13)</sup> 즉, 영국독립당은 스스로가 소셜 네트워크 상의 언론 매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홍보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상당 수의 유권자를 유럽연합 탈퇴 측 의견으로 포섭하는 데 성공했다.

다음으로, 영국독립당은 자신들이 확보한 지방의회를 거점으로 유권자 포섭을 진행하였다.<sup>14)</sup> 이는 탈퇴 진영 연합인 Vote Leave와 다른 전략이었다. Vote Leave는 주로 국가주권회복을 중시하여 브렉시트를 주장했으며, 영국 보수당 내의 리스본 조약 반대 세력이 주축이었다. 이들은 정치 엘리트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면서, 매스 미디어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Leave.EU 진영은 영국독립당이 주축이 되어 이주민·EU 분담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였고, 지방의회를 거

---

12) 김새미, 최진우 (2016). 영국 극우정당 성장의 사회문화적 요인. 유럽연구, 34(1), p.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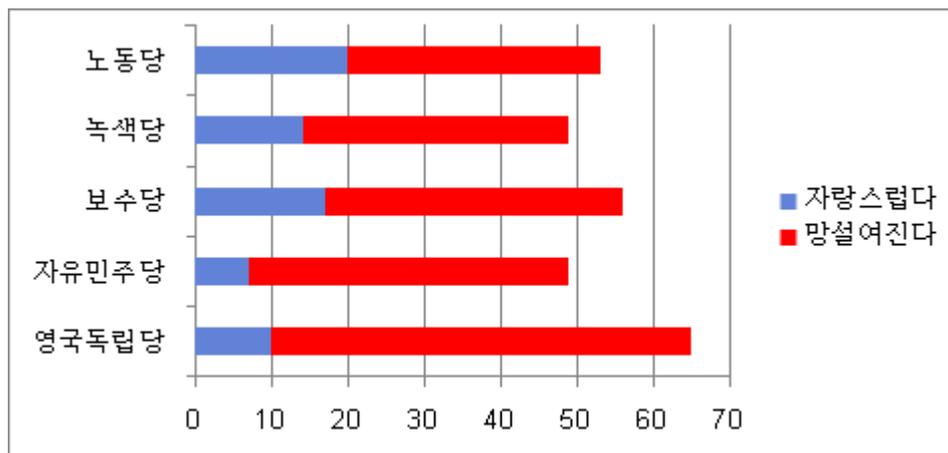
13) David Deacon and Dominic Wring, "The UK Independence Party, populism and the British news media: Competition, collaboration or containment?"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31, No. 2 (2016), pp. 169~184.

14) 이충희 (2017). 영국의 EU 탈퇴 과정에서의 영국독립당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분석. 유럽연구, 35(2), pp. 41~44.

점으로 유권자를 포섭하였다. 영국독립당이 총선에서 확보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노동당과 보수당 의원들까지 포섭을 시도하였다. 이들까지 포섭하여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Leave.EU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170,600명에서 270,000명까지 증가하였다.<sup>15)</sup> 이는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근소한 차이로 결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상당한 성과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영국독립당의 유권자 포섭 전략은 다소 후술할 스웨덴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전략이었다. 영국독립당 자체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려는 전략이나, 이념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의 행태는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정당 일체감을 형성하고자 하는 시도는 미미했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지지자들은 자신이 영국독립당의 지지자임을 선뜻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YouGov가 영국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2015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유권자 중 영국독립당을 지지한 사람들 전체의 55%는 자신이 영국독립당을 지지한다고 밝히기 부끄럽다고 답변하였다. 10%의 인원이 자랑스럽다고 답하는 데 그쳤다.

<그림2>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자랑스럽게 밝힐 수 있는가? (단위 : %)



출처 : YouGov<sup>16)</sup>

15) Andrew S. Crines, "The rhetoric of the EU Referendum campaign," Daniel Jackson, Einar Thorsen and Dominic Wring (eds.), EU Referendum Analysis 2016: Media, Voters and the Campaign (Poole: The Centr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Culture and Community, 2016), pp. 61~62.

이는 영국독립당에 투표하는 이들이, 그들의 정치적 목적이나 신념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여 동조한다기보다는,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 것임을 보여주는 조사이다. 이는 후술할 스웨덴민주당의 경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스웨덴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 상당한 정당일체감을 보인다는 점에서 영국민주당 지지자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2. 스웨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과 유권자 포섭 전략

### (1) 정치적 목적 : 스웨덴의 반이민정책 형성 및 원내 집권세력 도약

스웨덴민주당은 창립 초기에는 나치(Nazi) 추종자 또는 네오나치(Neo-Nazi) 세력이 주축이 되었다.<sup>17)</sup> 이념적으로 인종(race)에 기반한 민족주의(nationalism)의 형태를 띠었다고 볼 수 있다. Keep Sweden Swedish나 White Arian Resistance와 같은 극우주의 단체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상당수 존재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6년에 이르러 스웨덴민주당은 서서히 이념적 변모를 시도하였다. 한 사설의 표현에 의하면, 스킨헤드의 정당에서 중년 대머리 남성의 정당으로 변모하였다(from a party of skin heads to a party of older bald-headed men).<sup>18)</sup> 즉, 반엘리트주의(anti-elitist)를 표방하며 보통 사람(ordinary man)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스웨덴민주당은 인종이나 문화 간의 우월성을 논하지 않았다. 초기의 백인우월주의적 태도를 외관상으로 포기한 것이다. 그러나 스베아족(Swedes)와 비-스베아족 간의 차이는 상당함을 강조하면서 문

16) [https://d25d2506sfb94s.cloudfront.net/cumulus\\_uploads/document/2yocxdsyuu/InternalResults\\_150417\\_voting\\_Website.pdf](https://d25d2506sfb94s.cloudfront.net/cumulus_uploads/document/2yocxdsyuu/InternalResults_150417_voting_Website.pdf)(검색일 : 2018년 11월 24일)

17) Anders Hellström and Tom Nilsson, "We Are the Good Guys' Ideological positioning of the nationalist party Sverigedemokraterna in contemporary Swedish politics," *Ethnicities*, Vol. 10, No. 1(2010), pp. 57~59.

18) Johan Nordensvard and Markus Ketola, "Nationalist Reframing of the Finnish and Swedish Welfare States-The Nexus of Nationalism and Social Policy in Far-right Populist Parties,"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Vol. 49, No. 3 (2015), p.58.

화를 통한 ‘구분 짓기’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구분 짓기는 민족적 특성이 문화와 일대일 대응관계라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종주의에 기초한 극우주의의 태도를 교묘하게 감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스웨덴성(Swedishness)은 인종이 아닌 문화로 결정된다고 주장하면서, 결과적으로 스웨덴은 스베아족에 의해 구성되어야 함을 우회적으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다문화주의는 이러한 스웨덴의 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Sweden belongs to Swedes’라는 수사는 그들의 이념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문구였다.<sup>19)</sup>

이들은 그간 제시되지 않던 이민자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사람들 역시 이민 문제의 중대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는데, <표3>에서 알 수 있듯 2016년에는 스웨덴 내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이민 문제가 되었다. 2010년대에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던 스웨덴 이민자 수는 이 불안감에 기름을 부은 셈이었다.

<표3> 2016년 봄 스웨덴과 EU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이슈(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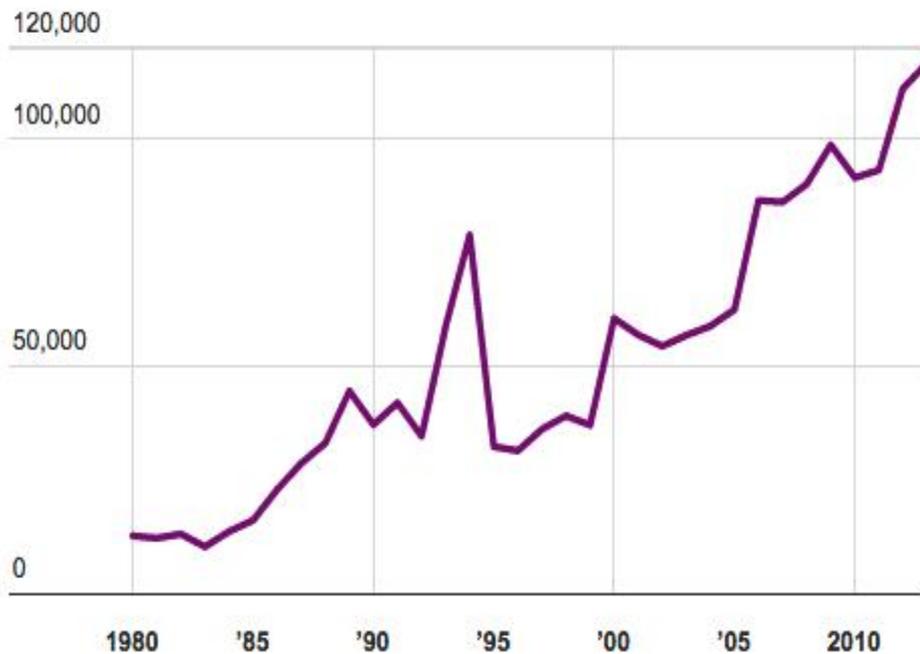
	스웨덴	EU 28개국
이민	44	28
의료·사회보장	26	26
교육	26	9
실업	24	33
환경	24	6
주택	15	8
범죄	11	10
경제 상황	9	79
테러	6	16
연금	5	13
세금	2	7
정부 부채	1	13

출처 : Eurobarometer, 2016년 5월<sup>20)</sup>

19) Rydgren, J. “The Sociology of the Radical Right”,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33 (2007), pp. 241~262.

위와 같은 이념을 바탕으로, 스웨덴민주당은 새로운 담론을 형성해내며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드러낸다. 그들은 스웨덴 고유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모델의 수호를 위해 이민 제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일종의 민족주의적 복지 담론(Nationalistic welfare disclosure)인 셈이다. 이들은 좌파 진영의 담론인 사민주의 복지국가 모델과 신우파 진영의 담론인 반이민 정책을 결합한 것으로, 복지 담론을 국민국가의 관점에서 재구성(reframe)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sup>21)</sup>

<그림3> 스웨덴의 연간 외국인 거주 허용(residence permits) 추이



출처 : 스웨덴 이민국(Swedish Migration Agency) <sup>22)</sup>

20) 신광영. 2016. “왜 스웨덴에서 극우정당이 급성장하는가?”, 『스칸디나비아연구』 18, p. 16에서 수정 인용.

21) 장선화. “북유럽 포퓰리스트 우파정당의 성장과 정당체제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Vol. 51, No. 4(2017), p.81.

22) <https://www.theguardian.com/news/datablog/2014/dec/11/a-brief-history-of-immigration-in-sweden-democrats-election> (검색일 : 11월 29일)

이는 프랑스의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이 사용한 전략과 유사하다. 과거 국민전선(FN : Front National)은 초기에는 레이건(R.Reagan)과 대처(M.Thatcher)를 신봉하며 신자유주의적 경제 개혁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에는 프랑스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복지국가 담론을 앞세웠다. 나아가 201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이민자들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면서 다소 인종주의에 가까운 성향도 띠게 되었다. 특히 이슬람 이민자들을 사회의 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인종주의적 성향을 띠는 정당이, 좌파의 담론과 신우파의 담론을 모두 흡수하여 세를 확장한 것이다. 스웨덴민주당은 이와 상당히 유사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스웨덴민주당은 제도권 정치 내에서 봉인되어있던 이민자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좌우 진영을 넘나들며 국민을 포섭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국내적으로 반이민 정책을 기류를 형성하면서 집권세력으로 도약하려는 스웨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알 수 있다.

## (2) 유권자 포섭 전략: 민주적 가치의 외연적인 수용 및 적극적 홍보

민족주의적 복지 담론에 기초하여, 스웨덴민주당은 비주류의 입장을 강조하여 유권자를 포섭해나갔다. 자신들은 평범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정치 엘리트들과는 다른 세력임을 역설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 대중의 친구이자 전통적인 정치 엘리트들에 대한 비판자라는 입지를 다지려던 것이다.

초기의 극우주의적 성향을 외관상 제거함과 동시에, 민주적 규범을 수용하는 등 정당성까지 확보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다만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은 이민(immigration)과 유럽연합(EU)에 관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었다.<sup>23)</sup> <표4>에는 이들이 제시한 담론들이 국내 관련 사안과 대외 관련 사안으로 나뉘어 요약되어 있다.

---

23) Anders Hellström and Tom Nilsson, "We Are the Good Guys' Ideological positioning of the nationalist party Sverigedemokraterna in contemporary Swedish politics," *Ethnicities*, Vol. 10, No. 1(2010), p.60.

<표4> 스웨덴민주당의 민족주의적 복지 담론의 요약

	일반 인민의 이익 (common man interest)	정치 엘리트들의 이익 (elite interest)
국가 외부의 이익 (external interest)	이민자의 유입을 제한하는 것은 국익을 증진시키는 일이다. 스웨덴인의 문화, 복지국가, 노동시장을 수호하면서 범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문화의 외부로부터의 유입을 축소하여야, 국가 외부의 이익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스웨덴 국민은 더 나은 복지, 고용, 안전을 향유할 수 있다.	다문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정치 엘리트들이 이슬람 세력의 이익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일반 인민(common man)'의 스웨덴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스웨덴 내에서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민자들에 의한 범죄로부터 스웨덴인들을 보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스웨덴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국가의 이익 (national interest)	민족국가로서, 그 영토 내에서 우세한(dominant) 민족과 문화에 기초하여 통치하는 것이야말로 보통 사람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외부로부터의 정치적, 문화적 영향은 각각 다른 수준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스웨덴의 다문화주의를 주장하는 정치엘리트들은 민족 국가 개념을 무시한다. 이 엘리트들은 정치 계급이 되어 주류 미디어와 결탁하였고, 이민과 다문화주의가 민족국가를 해친다는 점을 등한시한다. 따라서 정치엘리트들의 이익은 국가의 이익과 배치된다.

출처 : Nordensvard et al.(2015 : 367)에서 수정 인용 24)

영국독립당과 유사하게, 이들 역시 노동계층을 포섭하기 위한 전략을 펼치기도 했다. 스웨덴의 사민당 역시 상당히 우경화되었기 때문에

24) Johan Nordensvard and Markus Ketola, "Nationalist Reframing of the Finnish and Swedish Welfare States – The Nexus of Nationalism and Social Policy in Far-right Populist Parties,"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Vol. 49, No. 3 (2015), p.367.

노동자를 충분히 대변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이때 독특한 점은 이념적으로 극우 인종주의적 성향을 지니는 스웨덴민주당이 과거 사민당 당수이자 총리였던 페르 알빈 한손(Per-Albin Hansson)의 수사를 답습했다는 점이다. 한손은 스웨덴을 인민의 집(people's home)에 비유하며 복지국가 건설을 추진했던 인물이다. 스웨덴민주당은 그의 비유를 그대로 차용하였고, 자신들이 '인민의 집'에 대한 향수를 달래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우경화되기 이전의 사민당의 성격을 자신들이 이어받아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인민의 집'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인민이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지에 대해 한손은 논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스웨덴민주당은 인민의 집에 거주할 수 있는 진정한 인민(real people)을 진정한 스베아족(real Swedes)으로 제한하였다.<sup>25)</sup> 이렇게 신우파적 담론과 좌파적 담론을 결합하는 전략을 통해 스웨덴민주당은 이민자들에 대한 두려움을 국내정치적 집권의 토대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였다.<sup>26)</sup>

위와 같은 스웨덴민주당의 전략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일반 대중의 친구'라는 좋은 이미지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다.<sup>27)</sup> 이를 위해 당수 아케손(Jimmie Åkesson)은 길거리 유세 및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국민을 상대로 현재의 정부는 자국민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위선적이라는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스웨덴민주당이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스웨덴민주당 지지자들 역시 적극적으로 유세에 참가하였다. 스웨덴민주당 지지자들은 말뚝 등지에서 계란 세례를 받는 등 일반 유권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그들 스스로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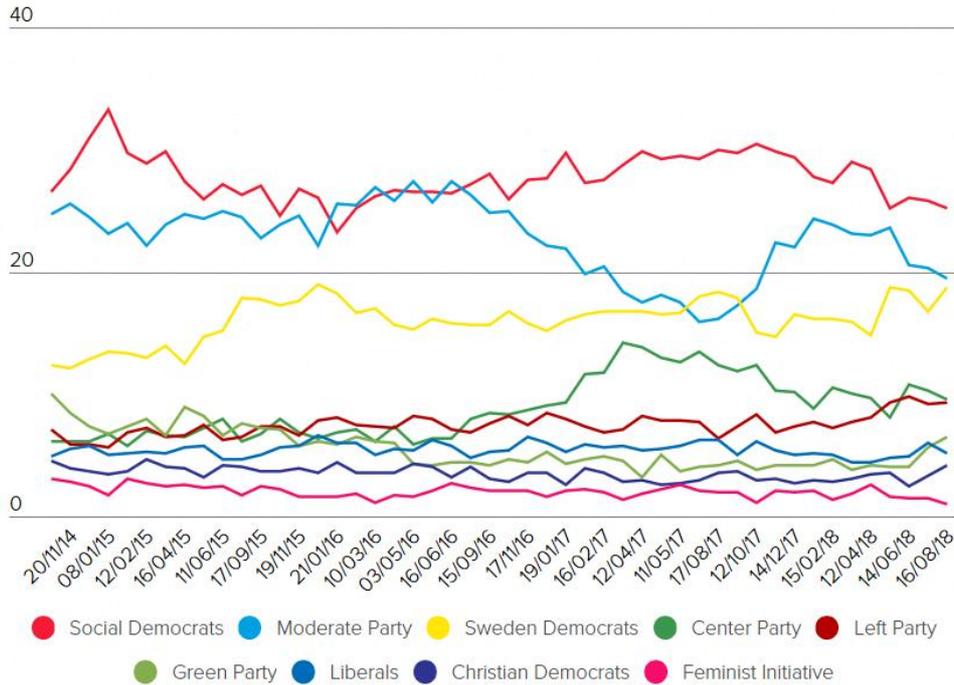
25) Anders Hellström and Tom Nilsson, "‘We Are the Good Guys’ Ideological positioning of the nationalist party Sverigedemokraterna in contemporary Swedish politics," *Ethnicities*, Vol. 10, No. 1(2010), pp. 62~63.

26) Swank, D. and H.G. Betz, 'Globalization, the Welfare State and Right-wing Populism in Western Europe,' *Socio-Economic Review*, Vol. 1 (2003), pp. 238~240.

27) 빈난새, 서유럽 반이민정당의 부상과 민주적 용인(acceptability), 정치학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 pp. 75~76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sup>28)</sup>

<그림 4> 스웨덴의 정당별 지지도 추이



출처 : Sifo via Poll of polls<sup>29)</sup>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보았을 때, 스웨덴민주당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조작함으로써 지지자들에게 자신들의 민주적 정당성을 각인 시켰다. 이때 민주적 정당성은 외연적인 민주적 가치의 수용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을 뿐, 내적으로는 여전히 인종주의에 기초한 철학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좌우 모두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담론을 제시하여 포섭의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이렇게 외연 상으로 민주적 가치를 수용함으로써 지지자들의 높은 정당일체감을 확보한 점은 앞서 언급된 영국독립당과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

28) Charlie Duxbury, "Fear and loathing on the Swedish campaign trail," POLITICO, August 27, 2018

29) <https://www.politico.eu/article/sweden-election-2018-fear-and-loathing-campaign-trail/> (검색일 : 2018년 11월 25일)

## V. 선거에서의 결과 및 이후의 행보

### 1. 2016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결과 및 영국독립당의 행보

2016년 6월 23일 실시된 영국 유럽연합 회원국 탈퇴 국민투표는 탈퇴 찬성 51.9%, 탈퇴 반대 48.1%로 찬성 측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즉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국민투표로 가결되면서, 영국독립당은 숙원사업이던 EU 탈퇴를 이루어냈다.

이후 영국독립당은 상당한 내홍을 겪었다. 당수였던 페라지가 당 대표 사임을 발표하였고, 후임으로 선출된 다이앤 제임스(Diane James)가 불과 18일 만에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원내의원으로는 유일했던 카스웰마저 탈당을 선언하면서, 영국독립당은 다시 국내 총선에서 원외 정당의 지위로 전락한다. 2017년 실시한 영국 총선에서는 지지율이 1%대로 추락하면서 원외 정당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sup>30)</sup>

즉, 영국독립당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로 유권자를 꾸준히 동원하는 데에 실패했다. 이는 앞선 유권자 포섭 전략에 기인하는 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영국독립당은 일반 유권자들을 위한 공약을 일부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브렉시트라는 단일 주제에 지나치게 몰입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유권자 포섭 전략도 브렉시트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당 자체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활발하지 않았다. 이는 유권자들이 영국독립당에 대해 정당 일체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가장 큰 이슈였던 브렉시트 이후에는 유권자들이 영국독립당에 동원될 유인이 없었던 것이다.

나아가, 영국독립당은 유럽의회에서 상당한 기세를 보였을 뿐 국내 총선에서는 당선자를 거의 배출하지 못했다. 유일한 원내의원이었던 카스웰마저 탈당을 선언하면서, 영국독립당이 원내로 진입하기 위한 방안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볼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영국독립당의 행보는

---

30) <https://www.bbc.com/news/election/2017/results/england>(검색일 : 2018년 11월 26일)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사실상 멈추었다고 보아도 무방한 수준에 이르렀다.

## 2. 2018년 스웨덴 총선에서의 결과 및 스웨덴민주당의 행보

2018년 9월 9일 실시된 스웨덴 총선에서, 스웨덴민주당의 꾸준한 유권자 포섭 전략이 상당한 성과로 이어졌다. 스웨덴민주당은 2014년 총선에서 확보한 49석에서 13석이 증가한 62석의 의석을 확보하였으며, 총 득표 수가 100만 표를 돌파하는 행보를 보였다. 2014년 원내 제3당으로 도약한 것을 넘어서, 연립정부 구성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올랐다.<sup>31)</sup>

반면 기존 정치세력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자 스웨덴 정치를 장기간 지배해온 스웨덴 사민당의 경우, 2014년 총선에 비해 의석수와 득표수, 득표율 모두에서 하락한 결과를 맞이하였다. 나아가 9월 25일에 스테판 뢰벤(Stefan Löfven) 총리가 의회에서 불신임되면서, 연립 정부 구성에 스웨덴민주당의 영향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sup>32)</sup>

그러나 스웨덴민주당에게도 난제가 있다. 다른 정당들이 스웨덴 민주당과의 연립정부 구성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스웨덴은 연립정부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민당 다음의 의석수를 가진 보수당의 당수 울프 크리스테르손(Ulf Kristersson)이 후보로 상정된 인준안이 안드레아스 노르리엔(Andreas Norlén) 의회 의장에 의해 상정되었으나 부결됐다. 사민당 좌파당 녹색당은 물론, 과거 보수당의 연정 파트너였던 중앙당과 자유당이 반대했는데, 울프 크리스테르손이 신나치주의 극우 성향인 스웨덴민주당의 지지를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제4 정당인 중앙당의 당수 애니 뢰프(Annie Lööf)는 스스로 총리 후보를 고사했다. 원내 10%에 해당하는 31석만으로 정부를 구성한다는

31) 원영수. 2018. “스웨덴 총선 - 극우 스웨덴 민주당의 도약과 스웨덴 정치의 해체”, 『진보평론』, (77), pp. 116~120.

32)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252027744703?did=NA&dtype=&dtypecode=> (검색일 : 2018년 11월 27일)

것이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결국, 11월 23일 노르리엔 의장은 스테판 뢰벤 전 총리를 다시 총리 후보로 상정하겠다고 발표했고 인준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이렇게 스웨덴민주당에 대한 기존 정치세력의 반감이 높은 상황에서 연립정부 구성에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스웨덴민주당의 경우 영국독립당과 달리 총선에서 상당한 의석수를 확보하였고, 10년 넘게 다소 안정적인 지지세를 구축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하게 원외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단일정책정당에 머무르지 않고, 국내 유권자들을 포섭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으며 유권자들의 반응도 일부 긍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단시일 내에 정치적 기세를 잃을 것이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VI. 결론 및 함의

본 논문은 포퓰리즘 정당에 해당하는 영국독립당과 스웨덴민주당이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은 어떠한지를 먼저 점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의 차이가 목적 달성 후의 행보에 어떤 차이를 가져왔는지를 바탕으로 포퓰리즘 정당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전략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정치적 목적의 경우, 영국독립당은 유럽연합 탈퇴를 꾸준히 주장하였다. 2010년대에 들어 점차 반이민 정책 등 국내 상황과 관련된 공약들을 강화하였으나, 유럽연합 탈퇴라는 기본 목적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스웨덴민주당의 경우, 유럽연합 탈퇴는 기본 기조라고 보기 어려웠다. 이들의 정치적 목적은 반이민 정책 기조를 국내에 형성시킴과 동시에, 원내 집권세력으로 도약하는 것이었다. 초기에는 스베아족의 국가를 세우려는 정치적 목적을 지니고 있었으나, 2005년을 기점으로 사민주의를 외적으로 수용하였다.

다음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의 경우, 영국독립당은 기술적인 측면에 집중하였다.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의 실시를 이끌어낸 후에는, 해당 투표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에 집중하였다. 브렉시트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특별한 철학이나 민주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셜 네트워크의 이용과 지역 중심 포섭 전략만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스웨덴민주당은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서, 정당의 장기적인 성장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측면도 고려하였다. 따라서 집권세력으로 도약을 위해 반이민 정책을 이슈화하면서, 자신들의 민주적인 정당성을 꾸준히 강조하였다. 여기에는 스웨덴의 국민적 합의인 사민주의까지 동원되었다.

정치적 목적 달성 후의 행보는 양측이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영국독립당의 경우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시행되고 1년 후에 진행된 총선에서 원외정당으로 전략하였다. 당초의 정치적 목적은 달성하였으므로

충분한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해당 정당에 소속되어 정치적인 도전을 이어가는 인물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원외정당으로의 전략은 부정적인 결과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스웨덴민주당은 상당히 안정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민자 이슈는 스웨덴민주당에 의해 국내적 이슈로 부상한 것을 넘어 원내 제3당으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나아가 스웨덴민주당은 총선에서의 의석이 201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립정부 구성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제도권 정치에 완전하게 안착한 것인지는 보다 장기 시계열에서의 분석이 요구될 것이지만, 영국독립당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꾸준한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고찰해보았을 때, 본 연구의 결론으로, 포퓰리즘 정당의 지속적인 유지는 정당에 의한 ‘민주적 가치의 외연적 수용’이 결정함을 도출할 수 있다. 정당이 외적으로 민주적인 정체성을 강조하고, 이를 시민들이 인정하게 되면 정당 일체감이 강해질 수 있다. 이러한 정당 일체감의 형성 여부는 정당의 지속성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가 된다.

민주적 용인의 측면이 반이민 정당의 ‘부상’의 요인이라는 선행 연구의 설명은 타당하지만(빈난새, 2016), 스웨덴을 넘어 비슷한 시기에 함께 부상한 영국독립당의 부상까지 충분히 설명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민주적인 정체성의 외연적 수용 및 그에 대한 용인은, 정당의 ‘부상’을 넘어서 ‘지속성’ 확보에까지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결론이 보다 적절할 것이라 판단된다.

위의 결론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한국적 함의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스웨덴민주당의 사례를 고찰하였을 때, 한국의 지성사회가 지나친 민족주의를 경계할 수 있는 경고등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다.

한국 사회에는 이전에 비해 이민자들이 증가하였고, 이른바 ‘다문화 가정’도 눈에 띄게 증가한 상황이다. 2018년 상반기에는 예멘으로부터의 난민 신청자가 대거 증가하면서 이민자 또는 외국인에 대한 대우를 놓고 상당한 논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쟁의 기저에는 민

족주의가 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단일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국사 교육을 통해 전국민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배경과 합쳐지며 더욱 강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론은 예멘 난민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경제위기로 향해 가는 상황에서, 난민들이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우려와, 국내 치안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응이 상당했다.

한국은 아직 유럽과 달리 난민이나 이민자가 상당 수준으로 증가한 상황은 아니지만, 예멘 난민 사태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은 민족주의 발흥의 가능성이 충분히 잠재된 상황이다. 나아가 미세먼지 등 환경 관련 문제로 인해 중국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악화되었고, 위안부 문제 및 강제 징용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일본에 대한 국민적 정서 역시 주기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난민 등의 이민자와 주변 국가에 대한 적대감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포퓰리즘 정당이 발흥할 수 있다.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합의가 상당히 안정적인 축에 속하면서, 인종주의 등에 대한 경계가 높은 수준이라 여겨졌던 스웨덴에서도 포퓰리즘 정당이 발흥했다는 점에서, 한국 역시 안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특히 포퓰리즘 정당이 인종주의에 기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구성원들을 위한다는 주장과 함께 민주적 정당성을 지님을 홍보하면, 시민들은 이에 현혹될 가능성이 높다.

인종주의와 결합된 포퓰리즘이 발흥할 경우, 한국의 지성 사회는 이를 조기에 포착하고 지속적으로 경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엘리트와 인민의 대립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연속적인 합의의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하버마스(J.Habermas)의 헌정적 애국주의(Constitutional Patriotism) 담론을 참고하여, 공동의 제도와 이를 구현하는 보편적 규범과 가치에의 ‘합리적인 충성심’을 고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 사회의 젊은 세대로 갈수록 탈중심화되는 경향을 감안할 때, 탈인습적 정체성(post-conventional identity)을 고양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포퓰리즘을 이용한 극단적인 민족주의의 발흥을 차단 혹은 경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 국문

- 강주현. 2011. “이민 이슈에 대한 정당의 전략적 대응과 이민정책의 변화: 덴마크와 스웨덴의 사례 비교분석”, 『사회과학논집』 42(2), pp. 25~50
- 김면희, 정혜옥. 2013. “스칸디나비아 3국의 극우정당 발전 양상 비교 연구: 스웨덴 민주당의 전망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31(2), pp. 25~45.
- 김새미, 최진우. 2016. “영국 극우정당 성장의 사회문화적 요인”. 『유럽연구』 34(1), pp. 73~109
- 박기성, 박재정. 2018. “극우정당의 등장과 성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9(1), pp. 133~152.
- 빈난새, 서유럽 반이민정당의 부상과 민주적 용인(acceptability), 정치학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
- 신광영. 2016. “왜 스웨덴에서 극우정당이 급성장하는가?”, 『스칸디나비아연구』 18, pp. 1~30
- 원영수. 2018. “스웨덴 총선 - 극우 스웨덴 민주당의 도약과 스웨덴 정치의 해체”, 『진보평론』, (77), pp. 116~128.
- 이충희. 2017. “영국의 EU 탈퇴 과정에서의 영국독립당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분석”. 『유럽연구』 35(2), pp. 25~50
- 장선화. 2017. “북유럽 포퓰리스트 우파정당의 성장과 정당체제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51(4), pp. 75~100.
- 정병기. 2012. “서유럽 포퓰리즘의 성격과 특징 -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노르웨이의 네오포퓰리즘 정당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0(2). pp. 139~134

- 영문

- Crines, Andrew S. "The rhetoric of the EU Referendum campaign," Daniel Jackson, Einar Thorsen and Dominic Wring (eds.), *EU Referendum Analysis 2016: Media, Voters and the Campaign* (Poole: The Centr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Culture and Community, 2016), pp. 61~62.
- Deacon, David and Wring, Dominic . "The UK Independence Party, populism and the British news media: Competition, collaboration or containment?"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31, No. 2 (2016), pp. 169~184.
- Erixon, Fredrik. "Sweden Ablaze", *The Spectator* ; London (Sep 1, 2018).
- Ford, Robert and Goodwin, Matthew. "Understanding UKIP: Identity, Social Change and the Left Behind," *The Political Quarterly*, Vol. 85, No. 3 (2014), pp. 277~284.
- Goodwin, Matthew. "The 2016 Referendum, Brexit and the Left Behind: An Aggregate-level Analysis of the Result" *The Political Quarterly*, Vol. 87, No. 3 (2016). pp. 323~332
- Harold Clarke, Paul Whiteley, Walter Borges, David Sanders & Marianne Stewart. "Modelling the dynamics of support for a right-wing populist party :the case of UKIP", *Journal of Elections, Public Opinion and Parties*, Vol 26, No. 2(2016), pp. 135~154
- Hayton, Richard. "The UK Independence Party and the Politics of Englishness", *Political Studies Review* Vol. 14, No. 3(2016), pp. 400~410
- Hellström, Anders and Nilsson, Tom. "'We Are the Good Guys' Ideological positioning of the nationalist party Sverigedemokraterna in contemporary Swedish politics,"

- Ethnicities, Vol. 10, No. 1(2010), pp. 55~76
- Herkman, Juha (2017) The Life Cycle Model and Press Coverage of Nordic Populist Parties, *Journalism Studies*, 18:4, 430~448
- Judis, J.B. (2016). 『포퓰리즘의 세계화』 (오공훈, 역). 서울: 메디치. (원서출판 2016)
- Lindvall, J., & Rueda, D. (2012). Insider-Outsider Politics: Party Strategies and Political Behavior in Sweden. In P. Emmenegger, S. Häusermann, B. Palier, & M. Seeleib-Kaiser (Eds.), *The Age of Du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Mudde, C., Kaltwasser, C.R. “Populism”,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Ideologies』 (2013), pp. 1~24
- Nordensvard, Johan and Ketola, Markus. “Nationalist Reframing of the Finnish and Swedish Welfare States –The Nexus of Nationalism and Social Policy in Far-right Populist Parties,”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Vol. 49, No. 3 (2015), pp. 356~375
- Pancevski, Bojan. “Sweden's Far Right Rises in a Campaign Defined by Immigration”, *Dow Jones Institutional News* ; New York [New York]06 Sep 2018
- POLITICO, August 27. 2018
- Rydgren, J. “The Sociology of the Radical Right”,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33 (2007), pp. 241~62
- Swank, D. and H.G. Betz, ‘Globalization, the Welfare State and Right-wing Populism in Western Europe,’ *Socio-Economic Review*, Vol. 1 (2003), pp. 215~245.
- The Guardian, November 22, 2018